

2006 지역 문화·예술계 결산

올 한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화두는 제6회 광주비엔날레였다. 그러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위축되는 등 문화예술 활성화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 한 해이기도 했다. 올 한해 지역 문화계를 미술, 공연, 문학·출판, 문화재 등 4회로 나눠 돌아본다.

광주비엔날레 총체적 재점검론 대두

0 미술

지역 파고든 미술관 운영 결실
황영성씨 등 해외진출 두드러져



올해 지역 미술계는 비엔날레 등을 통해 여행광주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비엔날레 개최 열기를 지역 미술 활성화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외화내반'의 한계를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 9월8일 제6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올해 벽두 오승운 화백의 타계는 가뜰이나 침체된 지역 미술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회화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까지 '20세기의 거장'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오승운(1939~2006) 화백의 갑작스런 타계는 지역 미술계에 커다란 손실로 받아들여졌다.

더욱이 근대화된 거장인 오지호 화백의 둘째 아들인 그가 무리없는 예술세계를 한창 보여줄 나이에 죽음을 맞아 예술인들의 안타까움은 더했다.

올해 9월 개막된 제6회 광주비엔날레는 정체성과 비전을 재점검해야 할 정도로 위상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열풍 변주곡(Fever Variations)'을 주제로 지난 9월8일 개막한 광주비엔날레는 관람객 70여 만명이라는 수치가 대변하듯 국제행사로서 명성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그 어느 대회보다 거센 변화의 압력을 받았다. 같은 기간에 열린 부산비엔날레와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등 해외 비엔날레와 경쟁에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아시아권 선두 비엔날레로서 입지를 굳히기에는 아쉬움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엔날레 대상 수상작에 대한 구작 논란, '아시아성'이라는 주제와 동떨어진 '남미 색선' 전시를 창설 12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에 흠집을 남겼다.

소규모 미술관이 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문을 열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것과 '공공미술'이 광주에 본격 소개된 것은 의미 있는 결실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2월 전남 장성군 금곡마을에서 '숲속 미술관'이 문을 연 것을 비롯 사립주의 미술관을 표방한 담양 '달피미술관'(5월), 함평 해보면 '잠필미술관'(6월) 등이 잇따라 개관했다.

남도예술회관이 문화전당 건립 사업으로 철거돼 대형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사라진 광주 회랑가에서 창(創)갤러리가 오픈한 것은 희소식이였다.

서양화가 황영성(65·조선대 명예교수)씨를 비롯한 지역 작가들은 활발한 해외진출로 광주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황씨는 지난 7월 이탈리아 팔라조 크리스피 미술관 전시에 이어 지난 11월 독일 콘스탈레 드레스덴 미술관 초대전을 갖는 등 가장 두드러진 해외 활동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젊은 작가 박소빈씨도 미국 뉴욕 엘가 워머갤러리에서 데뷔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내년 8월에 개관할 광주시립미술관(중외공원내)이 첫 삼을 뜬 것과 박지택씨가 제8대 광주시립미술관장에 취임한 것도 지역 미술계에서는 화제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5 광주일보 제17628호 2006년 12월 15일 금요일

삶의 노래는 어딴가요

18일 광주음악공동체 콘서트 문예회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콘서트 '삶의 노래는 어딴가요'가 18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열서구 학당'으로 유명한 국악인 윤진철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에는 박문욱·김원중·정용주·류영대·박종화 등 솔로 가수들과 그룹 사람과 사람, 노래래 한반도, 허브양상물, 프롤로그 등이 다양한 음악을 선사한다.



또 '광주출정가'의 작곡가 범스님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의 안치환(사진)이 찬조출연하며 강숙환·류재곤·장효중씨 등이 연주자로 나선다. 티켓 가격 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농악 명인 추모 공연

18일 담양문화예술회관

남도 농악의 전통을 이어온 농악명인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공연이 열린다.

전남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보유자 김동연씨는 18일 오후 2시 30분 담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뿌리 찾는 고향길-남도 농악 명인 추모 공연'을 선보인다.

최의 안재봉·이주완(이상 광주), 장구의 김만석(나주)·김희열(담양), 북의 양태욱(진도) 등 농악 명인을 기리는 이번 공연은 3부로 나뉘어 남도 씨김굿, 살풀이 춤, 남도민요, 농악놀이 등으로 꾸며진다. 문의 017-621-63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섯남자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공연에 나서는 연주자들

공연장에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예년과 달리 올해는 유난히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공연이 많이 준비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징글벨' '라라라라' 즐거운 캐럴

CNS금관5중주단 등 크리스마스 공연 풍성...탱고·'난타'도

광주에서 활동하는 젊은 금관연주자들의 모임으로 기존의 지루한 음악회 대신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즐거운' 공연을 모토로 삼은 CNS금관5중주단은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남구문예회관에서 '크리스마스에는 탱고를'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단순한 연주 뿐 아니라 안무와 퍼포먼스, 재미있는 이야기, 다양한 소품을 이용한 색다른 무대를 준비중인 CNS는 즐거운 캐럴 연주도 관객들을

행복하게 할 예정이다.

이창훈(바이올린), 황성규(플루트), 김태현(피아노), 신정문(비올라), 박문경(첼로), 채면석(콘트라베이스) 등 광주의 내로라하는 연주자들은 '여섯남자의 특별한 크리스마스'에서 한데 뭉친다. 25일 오후 4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슈베르트의 '송어',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 1번',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을 선사한다.

인기 레퍼토리 중 하나인 난버벌 퍼포먼스 '난타'는 24일(오후 4시·7시30분) 25일(오후 3시·6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멋진 공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시립예술단체들은 일제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정기공연을 준비했다. 먼저 소년소녀합창단은 16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주한라소년합창단과 '징글벨' '라라라라' 등 즐거운 캐럴을 선사하는 공연을 갖는다.

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금노상)은 22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그밖에 합창단은 21일 오후 7시 30분 역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명성 그대로—

소블리에의 조인과 함께 전세계 다양한 와인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곳!
"커피숍 카페 모리나리"

[남·여 아르바이트 및 경력사원 모집중]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예약 접수중●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전화 ☎ (062)525-2111 ~5(구.광주시청맞은편)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정한 이웃과의 아름다운 만남

런치스페셜 주중오찬정식 1인 15,000원

신선한 고급재료, 깔끔한 음식맛

●각종 대·소연회, 세미나, 돌, 회갑연●

명품 한우 전문점

삼형제가 직접 기른 한우삼형제

삼형제 축산농가에서 정성스럽게 사육되어 오직 '한우삼형제'만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공급합니다.

순수 혈통의 한우를 최상의 노력과 정성으로 사육하여 생산한 최고품질의 한우고기입니다.

고흥유자골현우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 살아있는 맛 그대로, 깨끗한 그대로
고흥유자골현우가 친해드립니다.

고흥 유자골현우 20년간 가양한 우수한 혈통을 가진 한우6천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태어난 우수한 송아지를 선발해 고급육생산 능력이 검증된 환경에서 사육하고 사육방식이 엄격하여 28개월까지 장기 비육하여 출하하는 완벽한 프리미엄 소스를 갖춘 비육우입니다. 또한 생산에서 출하까지 전과정에서 철저한 소독과 위생관리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을 높여주는 것이 유자골현우의 자랑입니다.

광주 최대 350석 이상의 대형매장 (단체모임·연회가능·룸16개 확보)

주차 100대 이상 가능

*매일매일 울릴 좋은 신선한 고기를 판매하니 맑은 이용 바랍니다. (축산물 판매장)

연말연시 단체예약

2006년 2월 9일 방영

한우의 옛 명성 그대로입니다. '백담이'를 비롯하여 '백미'는 미국과 고소한 함은 한우삼형제가 갖는 특유의 맛입니다. 부위마다 특색있는 맛이 있어 어떠한 요리를 하더라도 최상의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56
예약문의 062)676-3333

최첨단 디지털리모콘방식 최신형 태양히터 SUN Heater - 햇빛 난방시스템

高유가 시대 걱정!! 끝

인공태양히터(Solar Heater)는 산소를 태우지 않는 최고의 환경친화적인 기적의 히터입니다.

사계절 환경 인공태양히터의 특징

- * 스위치를 켜는 순간 0.1초안에 2200도의 불꽃열량으로 따뜻합니다.
- * 기름, 가스, 전기, 난방비 아깝게 절약할 필요없이 장소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 * 공간 열손실이 없으므로 난방비 손실도 없습니다.
- * 강의실, 교육장소, 교회 등 온풍기 소음, 기름냄새, 매연으로부터 해방하십시오.
- * 사업장근무지가 안전, 쾌적, 무취, 무소음, 무독, 강력난방, 산소를 태우지 않습니다.
- * 사업장의 난방중에도 쾌적한 환경으로 근무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 * 이제는 각종보조난로 따위는 더더욱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 * 크기와 무게가 다른 기존 난방기구에 비하면 콤팩트하며 안전합니다.
- * 독특하고 우아한 디자인 고품질의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일반용 전기 1일 10시간 사용기준
한달전기최고사용료 : **38,940 원**
으로 강력한 난방을 제공합니다.

인공태양히터 꼭 필요한 사용 용도 장소

공공장소, 호텔, 백화점, 골프장, 교회, 사무실, 매장, 놀이방 및 각종원, 병의원, 한의원, 체육관, 공장, 학교, 노래방, 정비업소, 미용실, 피부 관리실, 예식장, 농수산물매장, 요식업체, 음식점, 지하가래공업장, 저상차, 초소, 화원 등 이밖에 모든 사업장에 사용하시도 할 줄입니다.

(주)컴텔핫선 **COMTEL HotSUN** **02)733-0582**

태양히터 / 인공태양히터 가짜상표는 모두 떠나라!!